

머 리 말

이 작은 책자는 성도들의 교회생활을 위한 지침서 『교회생활』(강경신 저)에 대한 해설서이다. 『교회생활』은 교회생활에 필수적인 10가지 항목, 즉 예배, 기도, 헌금, 직분, 봉사, 친교, 교육, 전도, 선교, 교회성장을 선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핸드북이다.

필자는 『교회생활』을 수요기도회나 주일오후 신앙교육 교재로 활용할 교역자들에게, 또한 저 주제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설서를 집필했다. 『교회생활』과 동일한 열 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 해설서는 각각의 주제를 개혁교회 신학적 관점에서 한 편의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썼다. 이 해설서가 저 주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해명이 되기를 소망한다.

목회와신학연구소
소장 최 영 목사

예 배

1. 예배의 기원과 정의

그리스도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기원이 있다. 그리스도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이하, 눅 22:19)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이 명령에 순종함에 따라 그 특수성을 갖는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사(“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를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고, 행하실 것이며 또 행하시는 그 일을 기념한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대가없이 은혜로운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찬양한다. 또한 예배는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와 가치 없음을 인식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교회생활의 중심은 이 예배에 있다. 교회가 예배 안에 그 중심을 둘 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분명

히 구분될 수 있다. 교회는 예배 안에서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역사를 설명할 수 있고, 그를 증언할 수 있다.

예배 중에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예배 안에서 교회의 안식일이 시작된다. 예배 안에서 교회는 일상적인 의복을 예복으로 갈아입는다. 교회는 이제 공동체로서 사건이 된다. 각각 저마다의 자리에서 흠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공간과 시간 속에 모여서 특정한 모습으로 하나의 '성도의 교제'를 형성하고 실현한다. 예배 안에서 교회는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실존을 스스로 알리게 된다. 이 같이 예배 안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으로 존재하고 행동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으며,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갈4:6).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도 위엄도 있을 수 없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단지 공허하고 무익한 대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성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조항들은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고 불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믿음은 재치 있게 그 이성의 목을 잡아 비틀고, 온 세상과 거기 사는 모든 피조물이 달려들어 도 어찌 못했던 그 짐승을 목 졸라 죽인다. 어떻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것을 참되고 진실하게 여긴다. 비록 그것이 여전히 바보 같고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지라도 말이다”(루터). 믿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후 10:5).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 중의 최상의 지혜, 모든 의 가운데 최상의 의, 모든 예배 가운데 최상의 예배, 모든 제물 가운데 최상의 제물이다.

2.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예배

개혁교회는 흔히 ‘비예전적 교회’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개혁교회의 예배가 ‘성찬이 없는 예배’라는 사실이 이러한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예배에 관해 말한 것은 놀랍게도 ‘성례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스코

틀랜드 신앙고백」(1560)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서 개혁자들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대로 일관되게 성례전의 견지에서 제시한다. 그들은 성례전, 특히 성찬이 올바르게 규정되고 거행될 때에만 교회의 모든 예배가 비로소 율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예배는 흔히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인의 마땅한 태도로 여겨진다. 그래서 흔히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사람이 주도하니 외견상 그와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는 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단지 부차적, 우연적으로만 사람의 행동이다. 예배는 개인의 마음과 회중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시작되고 영감을 받고 끊임없이 지지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기서 사람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봉사뿐이다. 그러나 이 봉사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예배가 거행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예배에 적절한 수단을 예비하시며, 그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신앙

을 일으키시고 순수하게 하시며 촉진하신다. 이 모든 일의 흐름에서 사람은 오직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로서 일할 뿐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실행할 뿐이다.

물론 어떤 인간적 요소들이 예배의 주된 근거인 것처럼 보인다. 예배는 분명히 '경건'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배는 교회의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을 응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새롭게 앙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주요한 근거는 아니다. 교회의 예배는 분명히 '교훈'의 요소가 있다. 예배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성경을 해설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하는 교훈을 배우도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예배의 주요한 근거는 아니다. 또한 교회의 예배는 '신앙고백'이 아닐 수 없다. 예배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제하며 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예배의 주요한 근거는 아니다.

교회 예배의 주요한 근거는 우리 바깥에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현재하시고 행동하시는 사실에 있

다. 그는 우리 가운데서 자비와 신실로 다스리고자 하신다. 그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지속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존재하고 지속하기를 원하신다. 그는 그의 인격과 활동 속에서 모든 인간 역사의 의미와 목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사랑을 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와 목표는 교회 안에서 드러난다.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opus Dei)이다.

3. 사람의 행위로서의 예배

교회 예배의 주된 내용은 이 주된 근거에 상응한다. 예배는 교회의 주님의 뜻과 명령의 실행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어떤 장엄하고 아름다운 의식, 현대적인 설치미술, 음향장비 등을 예배에 도입하고 예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예배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없고, 예배의 주요 근거에 상응하지도 않는 것들이다. 예배에서 우리 자신이 행하고자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차적인 범주에 속한다. 예배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의 욕구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며 주이신 그리스도의 뜻

과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인간의 ‘행위’이고 활동이다. 예컨대,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인간의 활동처럼 실제로 실행되는 활동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교회답게, 특별한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예배 안에서 인간의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만을 거론하기로 하자.

1)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

교회의 고유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이다.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이고 강렬한 행동은 없다. 예배의 내용은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더 진실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행동 가운데서 성립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또 반복하여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말씀을 함께 경청함으로써 서로 봉사하게 된다.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세워지고, 생존하고, 자라나고, 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로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다.

2) 하나님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6) 하나님 찬양은 예배 안에서 그 특별한 형태를 띠게 된다. 교회의 예배 행위에는 설교와 기도처럼 하나님 찬양이 속한다. 찬양과 함께 예배 행위 전체는 ‘경배’, 곧 구체적이고 공적인 섬김이 된다. 그로써 그 어떤 신이 아니라 ‘임마누엘’에 대한 인정, 시인, 승인의 지배적 관점 아래서 그에 대한 합당하고 건전한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는 찬양과 함께 자신과 세상에게 분명히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모임에서 저 시인, 저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찬양은 교회의 모임과 예배모임의 형식 원리이며 예배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찬양은 공동으로 노래되어야 한다. 이 공동의 노래에서 하나님 찬양은 구체적인 절정에 이른다.

3) 기도

기도는 공동체 전체의 기본 요소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

라”(살전 5:17). 그러므로 기도는 ‘주의 기도’의 일인칭 복수가 말해주듯이 공동체의 사역이다. 공동체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그 모든 구성원들은 또한 개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단지 영혼의 호흡만이 아니요, 개인적인 마음의 고양만도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인간의 말이다. 기도는 뒤를 돌아보며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앞을 바라보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써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와 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붙드는 행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와 간구의 특별한 장소는 예배모임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그때마다 새롭게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구성된다. 그 형식에서 특별히 감사와 간구의 형식을 가져야 하는 교회의 기도는 예배 행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설교와 하나님 찬양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공동체의 모임을 분명하게 다른 강연회나 다른 모임들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는 공동체의 모임을 인간의 행위로서, 곧 ‘예배’로서의 특

낸다. 칼뱅은 성찬을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지탱하기 위해 주님께서 그의 선하신 호의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증거하시는 외적인 표지”라고 정의한다. 이 성찬의 주된 목적은 연약한 믿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설교가 갖는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찬은 복음의 설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말하자면, 성찬식은 설교의 확장이다. 말씀을 통해 ‘들은’ 은혜는 이렇게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다시 ‘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게’ 된다. 말씀의 선포와 성찬식은 이 같이 예배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성찬식을 자주 행하지 않는 것은 변칙이다. 칼뱅은 매주일 성찬식이 거행되기를 원했지만, 제네바 시의회는 일 년에 네 차례로 제한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칼뱅이 아니라 칼뱅의 반대자들의 후예들이다. 최근 매일 한 차례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 도

1. 기도의 문제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제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는 참으로 복음과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절박한 요구들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럴 수 있다. 우리에게 명령된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바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요청해야 한다. 기도는 이러한 간구이고, 기원이며, 요청이다.

인간이 믿음과 순종과 씨름하는 이 상황은, 루터의 신앙문답서에서, 면밀하게 고찰되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죄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은 우리의 소유물로서 주머니 속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그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믿는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말한다. “오셔서 우리의 불신앙을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요구사항들이 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는 단지 초라한 시작에 불과한 믿음과 함께 이미 내딛은 첫 발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한편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있다. 그것은 심히 연약하고 또 약하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는 수수께끼와 어려움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외적인 생활이 있다. 더욱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판결도 있다. 그 판결은 매순간 우리에게 말한다. “이것으로 족하지 않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작은 믿음과 초라한 순종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고 순종할지라도 이 모든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곧 가능성과 능력과 용기와 기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또한 믿음 안에서 전진하며,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복음과 율법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순종의 불완전함과 믿음의 약함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2.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어떤 것을 행한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행동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이해하려면 결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정확히 ‘응답’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은 우리가 지체로 있는 몸의 머리이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 없이 존재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아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심판하신다면, 이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고 계

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 서 계신다.

칼뱅은 우리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말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마치 그분의 입으로 기도하듯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발설하기도 전에 이미 기도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신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의 보증이 되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주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친히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모범을 수용해야 한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특별한 길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한다.

이런 기도의 훈련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대담하고 무모하기까지 한 태도를 자신 앞에서 취하도록 촉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소간 배짱을 갖고 자신을 대면하도록 하신다. 루터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옳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경건한 생각이나 혹은 기도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제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을 당신께 말하고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꼭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최대한의 겸손만이 아니라 대담하고 힘찬 태도가 요구된다.

3. 인간의 행위로서의 기도

은혜에 순종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가 또한 인간의 행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도는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인간은 복음과 율법과 그 자신의 믿음의 약함에 직면해서 자신의 처지를

깨달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간적 조건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곤궁과 또한 이와 같은 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그의 곤궁을 이해하고 도움이 그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일어나는 인간의 응답이다.

기도가 인간의 행위라면, 기도는 단지 잡담이나, 일련의 빈 말, 혹은 중얼거리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 기도는 그 안에 감정이 개입되는 어떤 행위여야 한다. 기도는 입술을 사용하는 문제 그 이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만약 기도가 단지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일이라면,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욕적인 것이 기도 하다. 이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기도나, 기도할 때 회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잘못된 위선이라는 칼뱅의 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언어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때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욕망들이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자신들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자. 그는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요청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선 그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은 모든 질문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점에서 칼뱅은 단호하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의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안락의자에서 편하게 쉬면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코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하나의 행위임과 동시에 주님을 향한 겸손한 간청이다. 이것은 은총과 자유의 문제

의 한 면이다. 우리는 일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유효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행동에 복종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인간의 행동으로서 간주될 때의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의 높은 단계, 더 높은 단계, 아주 높은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사다리는 제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보일지라도 거짓 신의 영역, “이 세상의 신”(고후 4:4)의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고전 15:47),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리에 강력하게 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이유이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귄의 현실을 말해준다.

헌 금

1.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형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 늘 있었다. 이러한 형식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참고, 행 2:44-45), 또한 이것은 그 초기부터 개혁교회의 특징이기도 했다(칼뱅의 제네바 교회).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요 4:24)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행동이며 최고의 예배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바치는 행위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재물의 신(맘몬)을 폐워시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동시에 이제부터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행위이다. 이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주신 도저히 값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제 헌금을 통해 자기 신

양의 실제적인 분량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신약성경이 강조하는 헌금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2. 형제의 나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는 말씀(행 2:42)에 충실히 응답하여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1563)은 신자들이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전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질문 103)고 말한다. 형제의 나눔은 여기서 예배의 주된 구성 요소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언급된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 강한 인상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의적이고 희생적인 의미를 지닌 전문용어가 대개의 경우 조심스럽게 교회의 봉사적 참여를 말할 때 쓰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바울이 신학적으로 비중있게 사용한 용어들, 예컨대 ‘봉사의 직무’(leiturgia, 고후 9:12), ‘복’(eylogia, 롬 15:29), ‘은혜’(charis, 고전 16:3, 고후 8:4이하), ‘연보’(koinonia, 고후 8:4, 9:13, 롬15:26), 또는 형용사

‘받을만한’(euprosdektos, 롬 15:31) 같은 용어들이 ‘헌금’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헌금들을 주저함 없이 ‘제사’(thysiai, 히 13:16)라고 부른다. 만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이 선물이 그것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근거 짓고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이 선물에 대한 응답은 그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자신을 바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롬 12:1). 그런데 자신을 바치는 이 형식은 단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다(히 13:15이하).

그러므로 헌금은 교회의 하나 됨과 형제애의 가시적인 표시가 된다. 우리 말 성경에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코이노니아’(koinonia)이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친교’ 또는 ‘교제’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고린도후서 8-9장, 로마서 15장26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지칭할 때 이 용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다. 헌금은 성도들 사이의 연대적인 친교를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 가까이 있는 이와 멀리 있는 이의 하나됨, 알려진 이와 알려지지 않은 이의 하나됨, 바로 이 하

나됨을 알리는 것이다. 또한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교제 의한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구제하려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서 행했던 헌금에 부여한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느 해인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 교인들도 생활의 궁핍함과 곤궁함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편지를 써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 모금을 호소했다. 이방인 교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성의껏 구제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려서 구제금을 모았고, 이것은 후에 주일 헌금의 기초가 되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던 일을 기록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호의적으로 맞이하고 그를 이방인 선교를 담당할 사도로 공식 인정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갈 2:10)

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우들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달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바로 그 일은 자신이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오던 것”(2:10)임을 상기시키고, 앞으로 그 일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일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 이 두 가지의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바울은 여러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해 정성껏 모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다. 항해 도중에 그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죽음의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그 모금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정도로 그것은 그에게 중요했다.

3. 헌금의 순서, 헌금의 사용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이 그러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 그 자체에 관해서도 결코 주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헌금은 예배의 전개 속에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헌금을 드리는 순서는 성찬의 떡과 잔을 준비하는 때가 좋을 것이다. 헌금은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장로나 집사들이 거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성찬의 재료들을 거룩한 제단에 바칠 때, 그와 동시에 헌금도 그 제단에 바쳐야 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성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헌금은 교회의 성찬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제단의 성례전’은 ‘형제의 성례전’과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찬의 식탁에서 떡을 주의 몸으로 먹고, 잔을 주의 피로 받아 마시는 것은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에 의하면 헌금은 일차적으로 구제와 복음전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음 교회는 교회 안의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자신들을 돌볼 수 없는 이들을 돕고 그들의 생활을 지지하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전 6장은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사건의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고, 2장에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행 2:45)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들에 의해, 특히 집사들에 의해서 공급된 것이다.

이러한 구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약성경은 어느 한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지역의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도와주었다는 일을 자주 기록하고 있다(참고, 행 11:29-30, 12:25). 고린도후서 8장-9장에서는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의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한 섬김을 언급한다. 바울은 여기서도 구제를 위한 헌금을 “성도들을 위한 연보”, 또한 “교제”, “은혜”와 “섬김”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은 서로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4)고 하여 헌금이 교회와 교회 사이를 균등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혁자 칼뱅의 제네바 교회를 헌금의 사용의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제네바 교회는 출애굽 공동체(출 16:16-18)와 사도적 교회(고후 8:14-15)의 정신을 따라서 교회재정을 4분할하여, 각각 교회당 보수 관리비, 목회자 생활비,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금, 긴급을 요하는 난민 구제금으로 사용했다. 교회 재정의 50%를 교회 안팎의 가난한 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구제 기금으로 지출했다. 실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재정의 대부분을 교회 내적인 일들, 곧 교회당 관리비와 건축비, 사례비 등 인건비와 각 부서 활동비 등에 사용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친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평과 균형이 있기를 원하신다.”(갈벡) 자신의 넉넉함으로 이웃 형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자 했던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들도 서로 유무상통해야 한다(참고, 행 2:44-45).

직 분

1. 성령의 은사로서의 직분

교회는 성령의 선물들을 통해서 결합되고 세워진다. 창조주이신 성령은 교회 공동체에 넘치는 선물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충만하게 하신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은사적 공동체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4-7).

이 공동체 안에서는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주도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성령의 선물과 능력에 의해 살아간다. 이 은사적 공동체는 친교 안에서 살아가며,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전 12:3). 인간의 소질, 기질, 성향의 다양함은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데 반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들의 다양함은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영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현존을 입증한다(고전 12:8이하).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각각

의 개인에게 자기 생명력을 손상시키지 말고, 자신에게 부여된 은사를 진지하게 철저히 사용하도록 권면한다(롬 12:6이하). 각자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완전히 사용하여 그에게 부여된 임무를 관철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예언의 말이든 사랑의 봉사든 가르침이든 위로든 구제든 혹은 다스림이나 긍휼이든 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팎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또한 교회와 세상 모두의 주가 되시는 분을 섬겨야 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7).

2. 직분의 필요성

교회는 직분을 통한 질서와 제도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질서가 깨질 경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예가 훼손당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다스리는” 직분을 언급한 것은(고전 12:28) 바로 이 제도를 지적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되, 오

직 말씀으로만 통치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마 26:11), 사람들의 사역을
'대리 활동'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인간의 도움 없
이 직접 하실 수 있고, 혹은 천사들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
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사역을 사용하시는 것이
교회로서는 유익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들을 존귀
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사람이 목사로 임명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한 명의
목사로부터 공통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
혁신자 칼뱅은 교회의 직분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
의 직분을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제시한다. 물론, 우리가 속한
개혁(장로)교회의 직분제는 결코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계급
제와 같은 것이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 자신이 이 직무를 맡은
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일 뿐이며,
따라서 교회의 지배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회 공동체 안
에서 직분들의 위계질서는 배제되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을 전제한다면,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

려는 것은 다만 교회의 직분의 기능적인 구별이다.

3. 교회의 직분들

칼뱅은, 교회의 조직을 거의 전적으로 영주들에게 맡겼던 루터와 달리, 매우 자주적인 교회의 질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질서를 본받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그 가르침을 단순히 재현하려고만 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필요했던 직분들 가운데 오늘날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직분이 있다고 보았다. 그가 신약성경을 따라 새롭게 규정한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개의 직분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 목사에게 조력하며 신도의 훈련에 참여하는 장로, 교회의 일상적인 일을 관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집사, 그리고 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맡아 책임지는 교사(박사) 등이다. 칼뱅은 후에 교사 직분을 목사 직에 통합한다. 이 네 개의 직분은 위계적 차이가 아니라 단지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가질 뿐이며,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간다. 그러나 이 직분들이 신약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교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

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적으로 분명하게 선포되는 한, 다른 형태의 직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날 칼뱅의 신앙과 신학유산을 물려받은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변화된 상황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직분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전통적인 목사, 장로, 집사 직분 외에 ‘권사직’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목사직

칼뱅이 기초로 사용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칼뱅은 이 다섯 개의 직분 가운데 단지 목사와 교사의 직분만이 여전히 동시대 교회에 적절성이 있고, 처음 세 개의 직분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목사와 교사, 이 두 직분은 나중에 사실상 하나의 직분, 목사로 통합된다.

교사는 구약의 선지자에 해당한다. 선지자는 그가 받은 탁월한 계시의 은혜 때문에 교사보다 우월하지만, 교사의 직분은 그 성격과 목적에서 그와 똑같다. 목사의 항구적 직분은 사도의 임시적인 직분에 해당한다. 복음 전도자는 사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교회의 교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점에서 어원적으로는 모든 교역자를 ‘사도’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어는 특히 “듣지 못한 새로운 소식”을 전한 신약의 사도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목사는 교역의 범위가 세계적이지 않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사도와 동일한 임무를 갖는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죄사함을 얻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마 28:19-20). 또한 그리스도는 그에 앞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본받아 그의 몸과 피의 거룩한 상징인 떡과 잔을 분배하라고 명하셨다. 바로 이것이 사도와 사도의 계승자들인 목사들에게 부여된 ‘영원한 법’이고, 이 법에 의해서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며 성례를 집행해야 한다. 바로 이점에서 칼뱅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단지 다스리기만 할 뿐인 로마교회의 감독들을 비판했다.

신약성경은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감독’, ‘장로’, ‘목사’ 또는 ‘교역자’라는 다양한 칭호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칼뱅은 이 네 가지 직분이 모두 같은 직분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성경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두 ‘감독’이라고 부르며, 여러 구절들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한다(딤후

1:5-7, 딘전 3:1이하).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기사가 있는데, 그는 그들을 ‘감독’이라고 부른다(행 20:17, 28).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직분들은 다 같이 성경이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으로 언급하는 직분들이다.

2) 장로직

로마서 12장 8절은 다른 두 개의 직분을 언급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스리는 사람들은(고전 12:28) 신자들 가운데서 선택된 장로들로서, 목사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신약성경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과 말씀은 선포하지 않고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들이다(딘전 5:17). 교단 헌법은 장로의 자격과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을 가진 남녀로서 딘전 3:1-7에 해당하고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함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여 선도에 힘쓴다.”

3) 집사직

본래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려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직분으로(행 6:1-3),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위임받은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맡았다. 그러나 중세 후기의 로마교회는 집사의 직분을 예배의식에서 사제를 돕는 조력자(부제)의 역할에 제한했다. 집사직은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단지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한 단계가 되었다. 칼뱅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는 말씀을 따라 집사의 직분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한 부류의 집사들은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고 구제물자를 분배하는 일을 맡게 하고, 다른 한 부류의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직접 보살피는 일을 맡게 했다.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집사의 자격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집사는 남녀 무흠입교인으로서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타인의 모범이 되며, 딤펬전 3:8-13에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 3년을 경과한 사람이라야 한다.” “목사, 장로와 함께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의 재정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

4) 권사직

헌법은 권사의 자격을 “년령 50세 이상되고 집사로 10년 이상 근속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서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자격규정은 특히 나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권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교인을 심방하며,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제직회원이 된다.”

봉 사

1. 봉사의 기원과 의의

교회 봉사의 기원은 예루살렘의 신생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들을 공평하게 돌보도록 일곱 사람을 선발하여 세웠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이 활동을 질서 있게 수행하여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행 6:4)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명확히 ‘집사’(디아코노이)라고 불리지는 않았고, 그들의 특별한 봉사 수행에 관해 상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이후 일곱 사람 중 다섯 명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처음에 언급된 두 사람, 곧 스테반과 빌립에 대해서 듣는 것은 주로 말씀 선포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보도들이다.

신약성경에서 봉사(디아코니아)는 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역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봉사는 로마서 12장7절에서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며, 빌립보서 1장1절과 디모데 전서 3장8-9절에서 집사들은 감독 옆에서 일정한 교회의 기능을 담당한 자로서 나타난다. 여기서도 이들의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봉사는 비로소 2세기에 들어서며 사회적 의무와 예전적 의무를 결합한 기능으로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중세 후기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집사직을 예배의 식에서 사제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제한시켰다. 집사직은 그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단지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가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 봉사의 측면에서도 갱신을 이루었다. 칼뱅은 제네바교회에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는 말씀을 따라서 집사직을 두 종류로 구분하여 한 부류의 집사는 빈민 구제금을 관리하고 구제물자를 분배하는 일을 맡게 하고, 다른 부류의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게 했다. 여자 집사들은 주로 후자의 일을 맡았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역은 두 가지의 기본 형태(말과 행동)로 나타난다. 이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은 전해지는 동시에 실천되어야 한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하고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는 말로 행하는 선포의 과제와 행위로 하는 봉사의 과제

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과 행동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예수님 자신의 삶이 이와 같이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교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봉사가 아니거나 혹은 직, 간접적으로 이것을 포함하지 않는 설교, 복음전도, 혹은 목회가 없다면, 또한 목시적이나 명시적으로 설교, 복음전도, 목회를 포함하지 않는 봉사 형태도 없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교회 안팎의 육신적, 물질적으로 곤경에 빠진 자들을 돕고자 하는 교회의 행위 행태를 특별히 ‘봉사’라고 칭하는 것은 타당한 의미가 있다.

교회는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마 25:40,45), 곧 병든 자, 가난한자,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고, 마지막 심판 비유의 중요한 취지에 따라 이와 같은 형제자매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해야 한다(마 25:31이하). 교회는 강도만난 자에게 저 사마리아 사람이 봉사했듯이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눅 10:29 이하). 교회의 삶과 행위가 이와 같은 봉사가 아니라면, 교회의 그리스도 선포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왼편, 염소들 곁에 희망 없이 서게 될 것이고, 교회의 열정이 아무리 다른 관점에서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영원한 형벌로 향한

비탈길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저 작은 자들과의 연대가 없는 교회의 증언은, 다른 면에서 아무리 순수하고 온전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참된 교회는 귀의 교회(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와 눈의 교회(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올바르게 거행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손을 펼치는 교회이다.

교회는 이 봉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드러낼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봉사를 통해 교회는, 마치 그 메시지가 결국 다만 말, 생각, 이념, 감정, 그리고 기껏해야 어떤 도덕적 주장일 뿐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회는 저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적어도 암시적으로 적은 부분에서나마 선한 말에 상응하는 선한 행위를 맞보게 하고 느끼게 하여 그들이 선한 말씀을 그 진리의 충만함 속에서 이해하게 해야 한다. 진리가 단순히 영적, 도덕적, 감정적 형태로 환원된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닐 것이다. 이런 면에서 봉사는 교회의 삶에 필수적이다.

2. 봉사를 위한 세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1)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과제는 교회가 다음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착수될 수 없다. 개별 인간의 곤경은 결정적으로 인간의 공동적 삶 전체의 일정한 무질서에 근거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 일정한 점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곧 그 한계에 부딪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닫아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교회 또한 저 무질서가 발생한 인간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가? 교회는 적어도 그의 침묵을 통해서 무질서의 생성에 기여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상황들'에 대한 이와 같은 통찰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한계에 봉착해서 자기 과제를 성취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오히려 교회는 이 통찰을 통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사회적 불의와 그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저 상태와 상황을 바꾸도록 강력히 호소해야 한다.

2) 오늘날 기본적인 사회보장은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국가는 풍부한 권력과 재력으로 가능한 모든 알려지고 분명한 비상 상황에 개입하여 비교할 수 없이 효과적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로써 교회의 봉사는 할 일이 없어지는가? 아니다. 주로 육신적, 물질적 관점에서만, 그러므로 부분적

으로만 대응하는 국가적 사회사업은 결코 온 인간을 위한 돌봄을 수행할 수 없다. 자유롭고 자발적인 봉사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본래적 조력의 핵심이다. 교회는 국가적 사회사업의 도식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추어진 비상사태를 찾아내는 감각을 갖고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적 복지국가는 교회의 봉사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없다.

3) 봉사의 책임을 떠맡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이 책임을 개별 일원에게 혹은 어떤 구호 단체, 사회기관이나 기구에 떠넘길 수 없다. 교회가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 특별히 소명 받고 교육을 받은 남녀 집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전체에 부과된 봉사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면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옳지 않다. 예컨대 의식적으로 특별한 소명을 갖고 봉사에 나서는 사람들 뒤에 서서 헌금함에 얼마의 구제 헌금을 내어놓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이 봉사를 위한 일에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친 교

1. 친교의 공동체

교회는 친교를 세우며 활동한다. 교회는 그의 메시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신비로서 지고한 친교,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와 갖는 친교를 증언한다. 이 기초 위에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것의 각 지체들과 갖는 특별한 친교를 증언한다. 또한 여기서부터 교회는 포괄적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그가 창조한 세상 사이에서 새로이 궁극적으로 확립한 친교를 증언한다.

교회는 이러한 증언의 내용에 힘입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를 세우며 활동한다. 물론 하나님 자신의 친교와 하나님과 인간의 친교,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자체의 친교, 또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친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교회의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증언의 내용이 되며, 그것을 전달함에서 적어도 상징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친교를 세운다. 이 친교는 모두를 서로 결합한다. 인간들 상호간의 이러한 결속은 교회 봉사의 모든 형태와 기능의 불가

결한 요소이며 표지이다.

확실히 이러한 친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왜곡된 인간의 교제를 분리시킴 없이, 저지하고 파괴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검을 주려 오셨다(마 10:34). 예수님의 낱선 검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든 교제를 예외 없이 예리하게 절단한다. 이 검은 그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도 언제나 거둬 필연적이고 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분리시킴에서도 결속함을, 싸움 속에서도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교회가 행하는 일에서 사람들 사이에 새롭고 진정하고 결실 있고 지속적인 친교가 생기고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은 그 형태와 기능에서 정상이 아닐 것이다.

2. 새로운 친교공동체 ‘에클레시아’

우리 말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이다. 이 에클레시아는 마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막사에서 잠을 자던 군인들이 기상나팔 소리를 듣고서 연병장에 모여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이다. 예컨대, 에클레시아는 그때까지 아무 관계없던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지닌 인종과 성과 계급을 망라하는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장소에 모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는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신비를 드러내준다(엡 2:12, 13, 21).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이 새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이루고, 여기서 사람들은 우선 이 새로운 모임의 구성원이 된다. 곧 먼저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으로 자신들의 근원에 신실하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차적인 모임(하나됨)을 위협함이 없이 또한 이리저리한 여러 모임들의 구성원이다. 그 일원들이 자신을 먼저 결정적으로 이리저리한 모임들의 구성원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에클레시아’임을 거부하고, 그로써 모인 사람들의 친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증언에 충실한 교회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선 그들의 멤버십의 수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혹은 저런 모임에 특별히 소속되고 관심을 갖는 것과는 상관없이 인류의 공동의 삶에서 모두를 결속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점은 오늘날 자명하게 경제적 계층들, 그들의 차이와 대립, 그들의 상호 투쟁하는 이해와 이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말은 ‘사회 양극화’ 또는 ‘격차사회’이다. 교회는 또한 인간들 사이의 이런 사회적 분열을 간과할 수 없다. 교회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의한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타개하고 우선 자신의 영역에서, 그러나 이로써 그 주변 세계에서도 양극화로 나누어진 인간들 사이의 친교를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들 사이를 가르고 분열시키는 사회적 문제가 어쨌든 초월되고 상대화되며 얼마간 그 문제의 폐기가 가시화되는, 또한 그로써 사람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3의 길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는 현실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형제적인 친교는 어떤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의 능력을 통해 형성하신 새로운 현실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도상에서 변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 변화된 삶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롬 12:2). 이 변화는 새로운 공동생활의 친교 안에서만 시작된다.

이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달라진다. 서로 돌봐주고 함께 염려하고 서로 남의 짐을 져준다(갈 6:2).

3. 연대적인 형제관계

초대교회는 분명히 형제적인 공동체였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살았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행 2:44-45, 4:34). 초대 교회의 한 전설은 이러한 성도의 친교가 어떻게 그 빛을 사회에 방사했는지, 어떤 방향에서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를 주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라우렌티우스는 교회의 집사로서 로마에서 빈민을 구제하는 일에 종사했다. 258년의 박해 때 그는 체포되었다. 그는 교회의 전설적인 하늘의 보화를 관리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황제는 이 보화들을 내놓으라고 명했다. 라우렌티우스는 돌아가서 그가 돌보아준 사람들 중에 황제 앞에 나서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맹인들, 불구자들, 마비된 자들, 절룩거리는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었다. 라우렌티우스는 이들

과 함께 황제 앞으로 나가서 말했다. “황제께서 탐내는 황금은 수많은 범행의 원인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진짜 보화는 세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의 눈에는 이들이 비참한 무리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교회의 보화이고, 교회의 금, 진주, 보석입니다.” 황제는 라우렌티우스를 쇠격자에 묶어 숯불로 천천히 구워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서 고통을 거두셨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친교의 방향을 지시한다. 성도의 공동생활이 어떤 현실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시사한다. 그리스도인의 연대적인 형제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아주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해, 모두를 위해 살고 존재한다. 거기에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한다. 이 형제적인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 공동체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는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차별대우를 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공동체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보화는 결코 금이나 진주, 보석 등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장 작은 형제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그들이 바로 교회의 보화들이다(마 25:31-40). 성도들

의 공동체는 이들과의 연대적인 친교 공동체이다.

4. 성례전의 공동체

교회가 친교의 공동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비할 수 없이 극적으로 드러난다.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친교 안에 받아들여진 자들이다. 또한 신자들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의 열매에 지금 참여하며 그로써 장차 일어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신자들은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교회가 특히 성찬 공동체라는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받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의 사귄(고전 10:16)에 참여하기 때문이며, 또한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는 표징을 통해 신자들이 의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찬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라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다. 실제로 초대 교회 공동체는 공동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송하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신자들은 성찬을 통해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형제자매와 사귄다. 친교를 맺게 되고, 그로써 형제자매들에 대한 연대적인 의무를 갖게 된다.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고전 12장26절의 말씀처럼 한 지체의 고통과 즐거움에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교회 안팎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채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없다.

이로써 세례와 성찬은 친교를 세우는 행동이 된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행동은 교회 공동체의 가치적이고 비유적인 행동, 그러므로 그 안에서 증언된 인간과 인간의 하나 됨의 원형, 의미, 능력이다. 그러나 저 원형의 비유로서 세례와 성찬은 단순히 공허한 표지는 아니다. 세례와 성찬은 가장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가장 웅변적인 증언, 교회가 세상에 빛진 증언, 곧 지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화에 관한 증언의 요소들이다.

교 육

1. 교회 교육의 필요성

하나님은 신앙공동체를 택하시어 매 시대에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신앙교육은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이 되어 그 시대에 필요한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또 신자들을 일꾼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회는 학교 그 이상이지만, 또한 학교이기도하다. 온전한 사람, 그러므로 그의 이성, 성향, 의지와 마음을 얻고 주장하는 지식은 다만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봉사하는 교회의 증언에는 제약되고 한정되기는 하지만, 우선 인간의 이해와 그의 기억에 호소하는 교육, 곧 살아 있는 지식으로서 그것의 주제와 성취로서 거론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이 속한다.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이 필요하다. 교회는 이 지식을 단지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만이 아니

라 장년층에게도, 무지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교육받은 자들에게도 전할 책임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신자들 모두는 일생 동안 신앙문답 교육생이며, 그런 자로서 전적으로 신앙문답 교육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성경연구와 어느 정도의 신학교육이 그 정당한 자리를 차지한다.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근원과 배경,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노력에 능력껏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몇 사람, 즉 전문가의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일이다. 확실히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은 오류와 실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독과 통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학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신학은 교역자들이나 논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어느 정도 신학을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든가,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얼마간 이해하고 있

다. 신학은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진술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교회 안에는 아예 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경건한 감정이나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운을 거는 투기와 같은 것이 아니며, 삶의 벼랑 끝에 매달려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협곡에 마지막으로 몸을 던지는 모험도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인 대상,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젖을 주는 여자가 엄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의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를 신뢰해 갈수록 엄마를 아는 정도가 깊어지는 것과 같다. 그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알고, 알기 때문에 신뢰한다. 신앙과 지식은 이와 같은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풍성한 이해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가 어

떤 본인지는 잘 모르겠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저한 신앙이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목사님이 “믿습니까?”라고 말할 때, “아멘!”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고백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벧전 3:15)고 말했듯이, 신앙은 무지와 혼동 속에서 암중모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싹에서 꽃으로 자라고 그리고 꽃이 태양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나날이 자라고 새로워져서 믿는 바를 정확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성경 지식과 신앙교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나는 신학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겸손한 말이 아니라 게으른 변명이다.

인간은 단순히 감정과 의지의 동물만이 아니고 또한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이념, 방향, 구체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신앙은 지성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에는 귀먹고, 눈멀고, 병어리였으나 이제는 듣고, 보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건이다(요 9:25). 그래서 지식이 없는 실천은 기대하기 어렵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지

식이 공허한 것이라면, 지식이 없는 실천은 맹목적이고 위험한 것이 되고 만다.

2. 교회교육의 과제와 목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하며 믿는 일에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세상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흑세무민하는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언뜻 보면 곡식과 가라지는 비슷하여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이단들도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복음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을 판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영들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10절에 의하면 매우 특별한 은사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한, 로마서 12장2절에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저절로 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학습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인간은 성경연구와 기본적인

이고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마 28:20)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본래적이고 일차적인, 모든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믿음을 창조하고 이로써 지식의 근본을 이루는 ‘교회의 박사’인 성령은 공동체 내에 또한 가르침이라는 특별하고 진지한 봉사를 세운다. 확실히 공동체 내의 가르침은 동반하는 선포(설교)의 요소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 분명히 교회 교육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서 언제나 또한 설교의 형태와 음조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설교가 수업 시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례 교육, 성경 강좌, 신앙교육 등은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영역에서는, 예배의 모임에서와는 달리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공동으로 위탁된 일, 그들에 의해 공동으로 대변되어야 할 일에 관하여 진지하게 정보를 주고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신중하게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교육의 의미이며 교육의 목표이다.

전 도

1. 성령과 전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먼저 성령의 주된 역할을 확인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는 역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열어 우리를 율아매던 죄의 힘으로부터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자비의 약속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며(고후 5:17), 우리를 중생 또는 새롭게 하시고(딤후 3:5), 우리를 성화시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하신다(살후 2:13).

장로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발생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항상 인식해왔다. 우리는 성령이 믿음과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신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회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 속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것은 성령이시지 결코 설교자나 전도자가 아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죽었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이성과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고전 1:23). 우리는 혈과 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요 1:12-13). 그러므로 전도할 때, 우리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갈병)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도하는 일에서 이렇게 성령의 우선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정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선포해야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믿음과 새 생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분은 궁극적으로 성령이시다. 이 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또한 열정적으로 기쁨에 가득 차 그 일에 임하도록 격려와 자극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신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다.

2. 전도의 내용과 목표

흔히 전도와 선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세계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위탁한 포괄적 과제로 이해되거나 혹은 교회가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과정에서 지리적,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이념적 제한과 장벽들을 뛰어넘어 봉사하는 의미에서 이해된다. 이와 달리 전도는 교회의 포괄적인 선교의 다양한 차원들 가운데 하나로써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선교의 핵심과 중심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교회가 복음 전체를 전체 세계에 전한다는 선교의 배경에서 전도의 고유성은 다음과 같다.

1)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사죄의 증언이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호소이다. 신약성경에서 복음 선포의 기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그에 대한 회개와 믿음(막 1:15)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2) 전도의 목표는 사람들을 신자들의 가시적 공동체, 곧 교회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전도는 교회적 선전의 형식이 아니며, 결코 일정한 교회의 회원숫자의 증가나 특수한 교리의 확산을 전도의 최상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시도는 전도가 아니라 선전이다.

3)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증언과 함께 진행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말과 행동, 섬김을 통해 실천한다.

4) 전도는 초청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설득 기술이나 위협적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일부 열광적 전도자들처럼 지옥의 끔찍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여 회개하게 해서도 안 된다. 전도가 초청이라고 할 때, 이것은 지옥의 불안에 직면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회개는 복음에 근거한다. 복음서에 의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응징, 처벌, 진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의 근거는 죄인을 용서

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비, 무한한 사랑에 있다(눅 15:11-32). 따라서 회개는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한다(눅 19:1-10).

5) 교회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확고한 예증이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갖추고 있을 때 전도는 가능하다. “미디어가 메시지다”(M. 매클루언). 일반 대중은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 곧 미디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세계에 대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 믿음, 정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서 그에 대하여 가시적이고 느낄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행 2:42-47, 4:32-35).

6)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속적인 복을 약속해주는 동시에 현재적인 선물로서 구원을 제공한다. 그러나 복음의 전도에서 주요 역할이 이 모든 것의 제공에만 국한된다면 복음은 하나의 소비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복음은 경건하지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신앙인을 양산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의 위탁을 함께 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

도록 부름을 받는다. 은혜의 말씀,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작정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요3 1:2-3).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 2:26). 전도는 (포괄적 의미에서) 사람들이 선교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선 교

1. 선교개념의 변화와 발전

그리스도교 선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째 되던 날 사람들 가운데 세차게 불어왔던 성령의 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복음은 서쪽으로 로마와 유럽 곳곳으로, 또 중앙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고대의 무역경로를 따라 동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1884년 9월20일 개신교 선교사 알렌의 입국과 함께 한국에서도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원래 선교는 종교개혁 교회의 중심 주제가 아니었다. 로마 가톨릭교회가, 특히 예수회가 16세기부터 선교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동안,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기존 교회의

개혁과 갱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개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명령을 새롭게 발견하기까지는 거의 3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식민지 시대와 상응하는 18세기와 19세기에 집중적인 선교활동이 전개되었다. 수 십 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여러 나라에 해외선교 기관들이 세워졌다. 영국 런던의 외방선교회(1795), 네덜란드 선교회(1797), 남아프리카 선교회(1799), 미국의 해외선교위원회(1810), 스위스와 독일의 바젤 선교회(1835), 프랑스 파리의 복음선교회(1822) 등이며, 이것도 단지 일부만 언급했을 뿐이다. 각 선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관점들은 서로 달랐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회들은 선교의 우선과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세기 초에 세계교회는 몇 차례의 선교대회를 통해 교회의 선교적 확장에 대해 새롭게 자성하는 계기를 가졌다.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인 선교대회는 서방 세력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서 자행한 악한 영향력에 대해 인식했던 최초의 선교대회였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구문명의 미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던 대회였다. 1928년 예루살렘대회에서는 신생 교회들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인정과 서구 세속주의의 범세계적

충격에 대해 민감한 인식을 나타냈다. 10년 후 인도 탐바람에 서는 옛 그리스도교 국가의 심장부에서 세력을 떨치는 이교주의(나치 이데올로기)와 투쟁하기 위해 부름 받고 복음을 위탁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계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년 동안 교회중심적 선교개념은 한층 더 확고해졌다. 그러나 1952년 빌링엔에서는 여전히 교회중심적인 선교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 있었지만, 그 회의의 과정에서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는 선교학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일기 시작했다. 1960년 스트라스부르 대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한 급진적인 주장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구조로부터 탈피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고 유동적인 집단으로 움직여야 하며, 교회를 급진적으로 비신성화시켜야 한다는 도전을 받았다. 그 후 10년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그런 집단에서의 선교 개념은 급진적으로 세속적인 이러한 비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게 선교는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교회의 교인수를 증가시키는데 관계있는 것은 아니었다.

1968년 읍살라의 세계교회협의회 제4차 총회는, 본질적으로 세계의 일상생활 안에서의 인간화를 위한 행동과 동일시한 선교의 정의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발전과 함께 세계의 종교들을 향한 새로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의 영역으로서 세속사회의 인정과, 또한 세계의 종교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에 대한 격한 반작용이 일어났다. “선교의 근본적 위기에 대한 프랑크푸르트선언”(1970)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덜 논쟁적이지만 아마도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것은 11,000명 이상의 해외선교사들의 선교사역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내의 보수적 복음주의 선교사에 의해 소집된 대회에서 채택된 1966년의 ‘휘튼선언’이다. 이 선언은, 세계교회협의회 안에서의 선교신학적 발전을 거부하면서, 또한 세계교회협의회 내의 선교적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던 일치와 사회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하라는 요청을 타진했다. 그 뒤 10년간 이 논쟁을 중재하려는 회의들이 방콕(1971), 로잔(1974), 그리고 나이로비(1975)에서 있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한 나이로비 보고서는 개인의 개종에 대한 부르심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행동에 대한 부르심 모두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통전적” 선교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논쟁의 양쪽 당사자들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이 논쟁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모든 교회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20)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논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선교의 정의, 주체와 태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언하라는 사명을 받고 세상에 파송된다. 이 선교와 함께 교회는 시작되고 출발하며(마 28:19이하), 세상에 복음을 전달한다.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명령이다. 교회는 이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선교를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 선교는 전도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물론 교육, 의료, 사회봉사 활동 등이 함께 수행되었

지만, 이것은 전도를 위한 수단이나 전략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선교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 자신이 선교의 행동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기관, 단체 등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교회 봉사의 다른 많은 기능의 실천적 수행과 상응한다. 그러나 이런 개인이나 단체들이 선교를 수행한다고 해서 교회가 자신에게 부과된 선교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개인들과 단체들은 다만 그 자체로서 선교 공동체인 교회 전체를 대리해서만 행동할 뿐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다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예컨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다른 의도가 개입할 때 모든 것은 잘못된다. 교세를 확장하려는 의도도, 또한 어떤 문화·문명을 이식하려는 의도도, 그 역사적 과거로부터 잘 알려진 어떤 숭고한 교리와 삶의 스타일을 전파하려는 의도도, 혹은 일반 정치적-경제적 이해와 열망을 지원하는 의도도 그리스도교 선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다.

3. 타종교와의 대화

교회는 선교의 과정에서 다른 토착종교들과 만나게 된다. 이 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선교의 책임과 과제로 수용해야 한다. 평화로운 공존 자체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지라도 종교의 차이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선교는 교회가 자만심을 버리고 토착종교들을 그 나름대로 평가하고 진지하게 다루며, 또한 그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그들에 의해서 조금도 압도됨이 없이!) 타협 없이(접촉점이나 그런 유사한 것을 가지고 유희함이 없이!) 그 급진적인 특성과 새로움으로써 제시하는 것을 전제한다. 선교는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엄격히 관철해내야 한다. 다른 종교에 대한 정직한 존경과 동시에 복음의 급진성과 새로움을 타협하지 않고 제시하는 일이 함께 수행되지 않는 선교는 품위가 없고 전망이 없다. 따라서 선교에는 타종교와의 대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대화는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셨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기간 동안 누구와도 차별 없이 대화를 나누셨다. 특히 당시에 천대받고 소외당했던 사람들과 대화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셨던 대화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는 복음 선포가 언제나 일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교에서 대화를 언급함은, 선교가 일방적이거나 강요적 방식이 아닌 상호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의 태도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가리킨다.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한 교계 일부의 부정적인 이해는 대화가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 복음 선포를 포기하고 선교를 대화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근거한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견해를 경청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언을 병행·포괄한다. 대화는 새로운 공동체와 인류를 위한 공동의 봉사에 참여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 저 두 가지 전제를 엄격히 관찰하는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심을 포기하고 오직 대화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종교 다원주의적 대화와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교인과 대화할 때 그

대화는 선교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선교를 수행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4. 선교의 방식

오늘의 선교현장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선교는 선교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선교 제한지역에서 선교는 NGO 형태로 진행된다. 집짓기, 학교 세우기, 봉사활동 등이 선교전략이 아니라 선교 자체가 된다. 분쟁지역에서 평화교육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할 구체적인 선교방식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목축, 우물 파주기 등 지역개발형태의 선교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양성을 후원하며, 교회를 개척하되 현지 교회의 주도 하에 수행해야 한다. 선교현장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목회자와 일반 성도는 선교 동역자로 협력하며 서로의 다양한 전문성과 소명을 인정해야 한다. 선교현장에 따라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갖춘 일반 성도의 활동이 더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선교현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선교활동의 목록은 교회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필요

성을 진단, 분석한 후 그것에 선교방향과 내용을 맞추어가야 한다. 이것은 선교하는 교회 중심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선교 모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5.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의 연계성

해외선교가 건강하고 활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내교회의 건강한 목회와 선교가 전제된다. 실제로 해외선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국내파송 혹은 후원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해외선교현장은 국내교회의 거울과도 같다. 해외선교사가 아무리 올바른 선교신학의 토대 위에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국내 후원교회가 잘못된 생각을 선교정책이나 방법으로 강요한다면 건강한 해외선교는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선교가 올바르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교회들이 올바른 선교관을 갖출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많은 교회들이 장기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단기 선교 팀을 파송하여 성도들이 해외 선교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게 한다. 이때 현장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각이나 선교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이 교정되지 않은 채로 나간다면 단기선교는 오히려 선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현지 선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선교학자 보쉬는 교회가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선교의 목표지만,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교회가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개혁하고 갱신해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고전 3:9)로 사용하실 것이다.

교회성장

1. 교회성장의 성경적 근거

신약성경은 근본적이며 실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성장에 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강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장의 의미에서 교회 안에 내재하는 성장을 지향하는 힘 역시도 신약성경은 알고 강조한다. 이러한 성장과 성장의 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곳은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설교를 듣고 대략 3,000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보도한다(행 2:41). 또한 사도행전 2장 47절은 교회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결과로 주께서 날마다 그러한 ‘구원받은 자’를 더해주시었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으로 증가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가서는 교회의 무리가 급증한 나머지 교회 내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표현되는 괄목할만한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이

다. 이렇게 말씀이 자란다는 표현은 12장 24절에서 다시 나타난다. 19장 20절에 가서는 급기야 말씀이 힘을 얻고 있다고 표현되는데, 그 뜻은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의 증거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16장 5절에서도 소아시아에서 교회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그 교회의 숫자(교회 회원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말한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의 첫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창성함과 불어남 같이(출 1:7), 누가에게는 신약시대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2. 그러나 어떠한 성장인가?

교회는 교회성장의 측면에서도 자기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선포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다. 교회가 이러한 자기 목적에 봉사함으로써 복음은 새로운 증인들을 얻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증인들의 등장이 교회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복음이 교회의 불가피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집합이라는 양적인 문제보다

는, 어떻게 해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해야 미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교회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인 측면을 고양하는 것을 교회의 큰 과제로 삼고,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래적인 성장이란 교회를 외형적으로 확장시키는 성장이 아니라 집약적이고도 수직적인 성장, 곧 그 높이와 깊이를 추구하는 성장이다. 확장적인 성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집약적이며 수직적인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숫자적인 성장으로서의 '확대적 성장'과 수직적 성장으로서의 '집약적 성장'이라는 이 상관관계는 언제나 유지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수평적인 확대적 연장, 곧 교회의 대성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노력을 통해 쇄신해야 할 필요성은 결코 없다. 왜냐하면 이 수직적인 쇄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그 언젠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 구성원의 증가는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집약적인 힘은 교회성장에서 참으

로 중요한 요소이다. 이 힘 속에서 ‘성도’는 그들 자신들을 신뢰하고, 성도를 서로 영접하며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가운데서 자라간다. 성도(sancti)는 ‘예배와 성례전’(sancta)과의 관련 속에서 성장해간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구체적으로 예배에서, 곧 교회의 “모임”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칼 바르트는 ‘성찬’을 예배의 ‘정상’ 혹은 ‘중심’이라고 말한다. 이 중심에서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으로 퍼져나가, 그들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교회, 곧 예배를 위해 모인 회중에 대해 말할 때, 빈번하게 “덕을 행하라”는 말을 사용하고(고전 14:3, 4, 5, 12 등등), 또 예배와 관련되는 예전적인 용어들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을 묘사한다(롬 12:1, 15:16, 빌 2:17을 참고). 이 성찬이 있는 예배에서 교회는 함께 배우고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훈계하고, 격려해주며, 경고하고 위로하며, 의지하고 서로의 짐을 져준다. 교회가 교회 내에 내재하는 그 힘 속에서 그러한 길을 가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때에,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지상에서 성도의 모임이 엄연히 성장해 나가는 것, 곧 집

약적이고도 영적인 그러한 성장의 기적만큼 더 기적 같은 것은 없다. 교회의 역사는 그곳에서 언제나 새롭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때로는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또한 때로는 좌절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제나 거듭 새롭게 생동하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주권적인 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힘은 이 힘 고유의 법칙에 의해 성도의 모임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주며, 교회 내에 내면적으로 거주하며 내재하는 성장의 힘이다.

그 힘은 언제나 소외된 자와 관련하여 그들의 낮은 처지를 높여주고,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강건히 해주며, 언제나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고, 언제나 슬픈 자들을 명랑하게 해주며, 언제나 비애에 젖어 있는 자들을 기쁨이 충만한 자들로 만들어준다. 이 힘은 세상 역사 한 가운데서 세상 역사를 관통하며 교회에 대해서는 새로운 길이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열어준다. 이 힘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며 동시에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교회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확대적이며 숫자적인 증가를 관건으로 하는 성장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까닭에 세상적으로 확대적이며 숫자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독특한 성장은 주로 압도적으로 철저하게 수직적이고 영적인 성장이다. 이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이며,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정체되거나 혹은 퇴보된 것 같은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장이다. 교회의 건강한 양적(수평적) 성장은 이 수직적인 성장에 근거를 둔다. 성장이란 살아 있는 생명의 진정한 표현이자 생명의 실행이며 생명의 신호이다. 이 힘은 교회 내에 내재하는 '생명의 힘'이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 안에서 교회의 생명성을 인식하고, 더욱이 교회의 힘 속에서 공동체적 생명의 힘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답변하지 못한 문제, 곧 교회에 내주하는 이 '힘'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한다. "예수가 살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인해 살아있다."라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실재적인 현재의 덕분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바르트에 의하면 교회의 성장에서 표현되고 성취되는 교회에 내재하거나 혹은 거하는 교회의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가 교회 안에 내재하는 삶의 능력이다. 그 능력에 의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살아간다."